

# 원석 선수들 조련 성과... 보석 스타로 '쾌속 성장'

광주FC 2023시즌 결산

③ 탄탄한 육성 시스템

이 감독, 성장 촉진제 투여  
비판에도 어린 선수에 기회  
엄지성·정호연 영플레이어  
허율·이희균·주영재 등 '쑥'



"Boys, be ambitious!  
(소년들이여, 야망을 가져라!)"

홋카이도대학의 정신적 지주인 윌리엄 스미스 클라크의 격언대로 올 시즌 광주FC의 젊은 피들은 용감했다. 광주가 K리그1 3위에 오르며 창단 첫 아시아 무대에 진출할 수 있었던 데는 젊은 피들의 활약이 절대적이었다.

위르겐 클린스만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은 지난달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을 앞두고 기자회견에서 "한국에서 어린 선수들이 기회를 받는 건 어려운 일"이라며 "이강인은 스페인 라리가였기 때문에 될 수 있었다. 독일 분데스리가의 도르트문트는 주드 벨링엄 등 어린 선수들을 뛰게 하며 이적시켰다"고 비판했다.

이 비판을 정면 반박할 수 있는 사례가 광주FC다. 이정호 감독은 이 비판에 대해 "팀마다 감독마다 생각이 다르다. 그 말도 맞다"면서도 "광주FC는 어린 선수들에게 기회를 주고 키워야 한다. 어린 선수들을 뛰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견해를

밝혔다.

광주는 '광탄소년단'으로 불리는 유스 출신 라인업을 구축했다. 공격수 엄지성과 허율·주영재, 미드필더 정호연·이희균이 금호고를 거쳐 프로에 입성한 뒤 전력에 힘을 보탤 자원들이다.

금호고 입학 전 원석이던 이들은 유스에서 최수용 감독 1차 가공을 거친 후 프로에서 이정호 감독의 2차 가공을 거쳤다. 움직임 하나하나에 집중하는 세세한 훈련을 통해 비로소 보석으로 거듭났다.

이 다섯 명의 보석이 합작한 공격포인트만 24개. 13득점과 11도움으로 경기당 0.63개의 공격포인트를 생산했다. 유스 지정 전인 2008년 금호고를 졸업했지만 광탄소년단의 정신적 지주 역할인 주장 안영규 역시 중앙 수비수임에도 2득점과 2도움으로 힘을 보탤었다.

이 보석들 중에 단연 빛났던 선수는 정호연이다. 지난해 엄지성이 K리그2 영플레이어를 거머쥐며 최고의 신인으로 거듭났는데, 올해는 정호연이 K리그1 영플레이어에 등극하며 2년 연속 수상자를 광주에서 배출하는 쾌거를 이뤘다.

정호연은 올 시즌 개막전에서 수원삼성을 상대로 아사니의 선제골 겸 결승골을 도우며 광주의 1부리그 연착륙 발판을 마련했다. 2-3월 열린 4경기에 풀타임 출장해 기록 없는 경기력을 선보이며 시즌 첫 레모나 이달의 영플레이어상 주인공이 됐다.



광주FC 정호연과 이순민, 이희균이 지난 4월26일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제주유나이티드와 하나원큐 K리그1 2023 9라운드 홈경기에서 헤이스를 상대로 협력 수비를 펼치고 있다.

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정호연 공격포인트는 곧 승점이라는 공식이 만들었다. 광주는 올 시즌 정호연이 출장한 34경기 중 공격포인트(2득점 4도움)를 올린 6경기에서 5승 1무로 16점을 쌓아 담았다.

정호연은 국가대표팀에서도 맹활약을 펼쳤다.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열린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나서는 황선홍호에 발탁돼 조별 예선에서 결승전까지

7경기에 모두 출장해 역사상 최초 3회 연속 우승에 기여했다.

K리그 동료들과 기자들도 정호연의 활약을 인정했다. 정호연은 영플레이어 투표 중 주장과 미디어에서 각각 최다인 6표(오반석·오스마르·최영준·홍정호·김승대·김기희)와 43표를 얻었다. 감독 투표에서는 2표(김진규·윤정환)에 그쳤으나 차순위인 황재원을 환산 점수 2.79 차이로

제쳤다.

새 시즌에는 젊은 피들의 활약이 더 강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광탄소년단에는 김천상무에서 군 복무 중인 신승훈과 김포FC에서 임대 생활을 하고 있는 조성권이 가세하고 비유스 출신의 정지훈과 오후성, 김승우도 올 시즌 가능성을 엿보였다.

한규민 기자 gyubin.han@jnilbo.com

## '완도 출신' 이소미, 내년 LPGA 투어 진출

Q시리즈 공동2위...풀시드권 확보

완도 출신 프로골퍼 이소미(사진)가 세계 최고 무대인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진출 꿈을 이뤄냈다. 이소미는 2024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출전 자격을 획득할 수 있는 웰리파잉(Q) 시리즈에서 공동 2위로 마쳐 풀시드권을 확보했다.



이소미는 7일(한국시간) 미국 엘라배 마주 모빌의 매그놀리아 그로브 골프코스(파72)에서 열린 Q시리즈 최종 6라운드에서 버디 1개와 보기 2개를 묶어 1오버파 73타를 쳤다.

최종합계 26언더파 404타를 기록한 이소미는 사이고 마오(일본)와 함께 공동 2위로 Q시리즈를 마쳤다.

국가대표 출신인 이소미는 완도 출신으로 한국남자골프의 살아 있는 전설 최경주의 모교이기도 한 완도화흥초등학교에서 골프 선수의 꿈을 키워왔다.

이소미는 오래된 연습장에서 스윙을 다듬고 백사장에서 벙커샷 연습을 하며 실력을 갈고 닦았다.

지난 2019년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에 데뷔한 이소미는 통산 5승을 쌓았다. 2021년과 2022년에 2년 연속 2승씩을 기록했고 올해는 우승이 없었지만 준우승 2회, 3위 4회 등을 기록하며 대상포인트 6위, 상금 7위에 올랐다.

시즌이 끝난 뒤 LPGA에 도전장을 내민 이소미는 1라운드부터 정교한 샷을 자

랑하며 선두권 경쟁을 벌였다. 5라운드 중간합계 27언더파 331타로 단독 선두에 나서면서 '수석 합격'에 대한 기대감도 키웠으나 최종 6라운드에서 주춤하면서 공동 2위에 만족해야 했다.

Q시리즈 수석 합격은 무산됐지만 이소미는 상위 20위까지 주어지는 내년 시즌 LPGA 풀시드권을 확보하면서 내년 루키 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수석 합격은 2019년 LPGA 투어 경험에 있는 호주 교포 로빈 최가 차지했다. 로빈 최는 이날 4언더파 68타를 쳐 최종합계 28언더파 401타로 수석 합격했다.

KLPGA 투어 통산 3승의 성유진은 장효준과 함께 공동 7위(19언더파 411타)에 올라 내년 LPGA 투어 출전권을 따냈다. 올해 KLPGA 투어 다승왕(4승) 임진희는 공동 17위(13언더파 417타)로 합격에 성공했다.

최동환 기자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과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입상 선수·지도자·단체 임원 등이 7일 전남도체육회관 1층 다목적체육관에서 전남선수단 해단식을 갖고 내년 대회 선전을 다짐하고 있다.

전남도체육회 제공

## "전국체전 전남선수단 종합 4위 수고하셨습니다"

해단식서 입상 단체·선수 시상  
육상 정일우·이은빈 최우수상

전남도체육회가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전남선수단 해단식을 갖고 입상단체와 선수들을 축하하고 격려했다.

전남도체육회는 7일 전남도체육회관 1층 다목적체육관에서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전남선수단 해단식'을 개최했다.

이날 해단식에는 송진호 전남체육회장과 명창환 전남도행정부지사, 서동욱 전남도의회 의장을 비롯해 전남체육회 임원, 시군체육회 임원, 회원종목단체 및 유관기관단체 임원을 비롯해 입상학교장 및 선수, 지도자 등 총 250여명이 참석했다.

전남선수단은 이번 전국체전에서 금 60·은 59·동 74개 등 총 193개 메달을 획득하며 종합 4위와 성취상 1위의 성적을 거뒀다.

이번 해단식은 전국체전 기간 동안 전

남 선수단의 활약상이 담긴 영상물 상영과 성적 보고, 선수단기 반환, 성취상 1위 상배·종목우승 상배 봉정, 각종 시상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시상식에서 상위입상 종목단체인 27개 단체중 소프트테니스, 검도, 농구, 수영, 요트 전무이사들이 대표로 전남도지사표창을 수상했다.

미래유망선수에게 수여하는 전남도의 장상은 전남에 떠오르는 양공스타 조한이(순천여고 1년)와 자전거 대표 유망주 나윤서(전남미용고)가 받았다. 태극상은 육상 트랙에서 3관왕을 달성한 송수하(전남체고 3년)가 수상했다.

공로 부문에서는 25개 단체 중 대표로 2년연속 종합1위를 달성한 전남댄스스포츠연맹(회장 김재웅)과 고등부배구 전국 최강학교인 순천제일고(교장 황태식)가 선정됐다.

성취상패는 경기력 향상이 높은 20개

종목단체중 대표로 전남테니스협회(회장 유인숙)와 전남배구협회(회장 조재만), 전남하키협회(회장 변춘섭)가 수상했다.

최우수 선수상은 전국체전 남일부 포환 던지기 9연패를 달성한 여주시청 정일우와 '여자 단거리 육상 유망주' 이은빈(전남체고 2년)이, 최우수팀상은 올해 전국대회 3관왕과 창단 첫 전국체전에서 금메달을 차지한 광양여고와 전국체전 5연패(윤용진)와 2연패(김민수)를 배출한 전남도청 우수팀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제104회 전국체전 성공개최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준 전남도와 22개 시·군, 선수, 지도자, 시·군체육회, 종목단체 관계자 모든 분께 감사하다"며 "내년 제53회 전국소년체육대회와 제105회 전국체전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동환 기자